

쓰루마루성 고로몬 건설협의회 추진 내용

鹿兒島(鶴丸)城御樓門の復元(鶴丸城御樓門建設協議会の取組)

Efforts of the Tsurumaru Castle Goromon Gate Construction Council

鶴丸城御樓門建設協議會의 노력

鶴丸城御樓門建設協議會的努力

고로몬 복원은 가고시마현민으로 인해 구성된 유지단체(有志團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단체) 등의 헌신적인 복구활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가고시마 경제동우회(鹿兒島經濟同友會)를 비롯하여 가고시마현에 있는 5개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구축된 ‘쓰루마루성 고로몬 복원실행위원회’와 가고시마현이 공동으로 ‘쓰루마루성 고로몬 건설협의회’를 설립하고 추진되었고, 이어서 가고시마시의 협력을 얻어,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15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관민 일체가 되어 추진되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충실히 147년만에 복원한 고로몬은, 일본 최대급의 청동제 샤치(鯨: 몸은 물고기, 머리는 호랑이의 상상의 동물)가 지붕 위에 놓여 있습니다. 높이와 폭이 각각 약 20미터의 일본 최대의 성문이며, 가고시마의 새로운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 | |
|--------------|--|
| 2013년 4월 | 고로몬 복원검토 위원회가 제시한 ‘복원을 향한 방향성 제언’ |
| 2013년 12월 | 그 후 발족한 ‘쓰루마루성 고로몬 복원실행위원회’가 기부금 모금활동 개시 |
| 2014년 7월 | 기부금 액수 당초 목표액수(4.5억엔)을 달성 |
| 2015년 2월 | 쓰루마루성 고로몬 건설협의회 설립 |
| 2015 ~ 2016년 | 가고시마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수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
| 2017년 9월 | 건설공사 발주 |
| 2018년 9월 | 기공 |
| 2019년 7월 | 상량식 |
| 2020년 3월 | 완성 |

2020년 4월

쓰루마루성 고로몬 건설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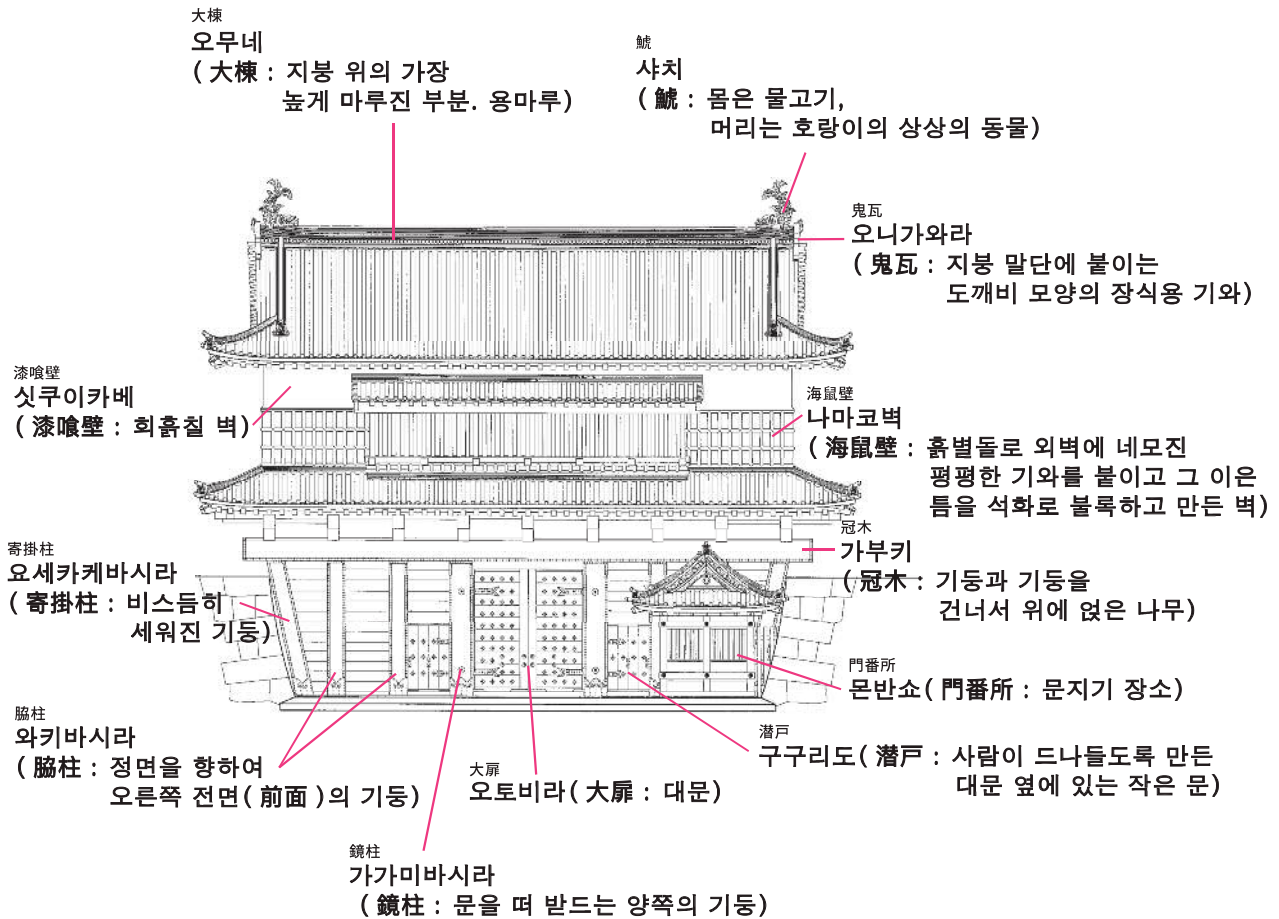
쓰루마루성 고로몬 복원실행위원회



▲누문 로고



▲누문



▲고로몬의 모습

2층 2중의 야구라문 (櫓門: 누문) (목조 2층 건물)

<총중량>

약 320t

<높이/폭>

약 20m

<안쪽 길이>

약 7m

<오모바시라 (主柱: 중심 기둥) (가가미바시라 (鏡柱: 문을 떠 받드는 양쪽의 기둥)) >

약 90cm × 약 70cm

<오토비라 (大扉: 대문) (한쪽 편) >

약 1.4t, 세로 5m × 가로 2.5m

<오니가와라 (鬼瓦: 지붕 말단에 붙이는 도깨비 모양의 장식용 기와) >

19 편 (오무네 세로 115cm × 가로 130cm)

<나마코가와라 (海鼠瓦: 원통을 반으로 자른 모양의 기와) (1 장) >

약 12kg, 세로 68cm × 가로 38cm

<사치 (鯨: 몸은 물고기, 머리는 호랑이의 상상의 동물) >

아가타 (阿型: 입을 벌리고 있는 형태) 420 kg, 운가타 (吽型: 입을 다물고 있는 형태) 360 kg

높이 1.8m × 폭 1.35m

<시키바리 (敷梁: 긴 대들보 중간에 직각방향에 배치되는 대들보) (배면) >

통나무 3 개 다이모치즈기 (2 개의 목재를 서로 경사 방향에 가공하여 조합시키는 건축방법) × 2 열
자귀 (목재를 건목칠 때 쓰는 도구) 마무리, 최대 지름 약 100cm